

# 수업 중 19금 영화에 성비위 논란

## 광주시교육청 “선정적, 부적절 발언” 수사의뢰 해당 교사 “사실 관계 확인없이 성비위자 취급”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보여준 10분짜리 단편영화를 둘러싸고 성비위 논란이 일고 있다.

내용이 선정적이고 교사의 관련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 당국이 수업 배제 조치에 이어 수사를 의뢰하자 해당 교사는 “민원을 이유로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H중학교 도덕교사 A씨는 지난해 9~10월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3월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과 윤리' 수업을 진행하면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를 상영했다.

오프닝음악에 이어 10분동안 이어지는 이 영화는 남자와 여자 간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바꾼 일명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화제적으로 평가받고 있다.인터넷상에서는 일부 선정적 장면과 대사 때문에 '19세 미만 관람 금지'로 등급이 매겨져 있다.

여성배우가 상의를 탈의한 채 공공장소에서 거니는 모습과 성기를 그대로 묘사하는 대사, 여성들이 흥기로 남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이 다분히 선정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일부 학생이 지난해와 올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시교육청은 성 비위 사건 매뉴얼에 따라 지난달 26일 1학년, 이달 8일 2, 3학년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사안을 '성비위'로 결론 짓고, 지난 9일 해당 교사에 대해 2차 학생 피해 방지 예방 차원에서 수업 배제와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교사가 이에 불복, 수업에 계속 참여하자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측에 재차 수업 배제와 분리 조치를 요구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문 결과 성비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었고 해당 교사가 수업 배제 등은 거부하면서 조사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재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심적 불안감을 호소했다”며 “피해 학생들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절차나 당시 교과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도 없이 민원이라는 이유로 수업을 배제시키고 수사 의뢰까지 하는 건 상식적으로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학생들의 주장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당시 수업과정에서 나온 발언

을 앞뒤 맥락을 자른 채 자의적으로

편향해 신고한 것인데도 교사의 말을 듣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며 “성비위 교사로 낙인 찍혀 해직당하거나, 교육청이 사과하고 일련의 배상조치를 하든 양자책일하는 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와 일부 교사들은 교육청의 이번 조치가 “과도한 교권 침해”라고 보고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인호 기자



셀링한 일본 브랜드 의류매장

일본 관련 제품 불매 운동 확산으로 일본여행을 비롯한 일본 브랜드 맥주, 의류 등 제품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의 한 일본 브랜드 의류 매장이 셀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민주당 전남도당, 동료의원 성희롱 등 시의원 2명 제명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2일 윤리심판위원회를 열고 동료 여성 시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목포시의회 김훈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또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된 여수시의회 민택희 의원(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을 내렸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무안 남악도당 회의실에서 9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3시간 여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같이 징계 의결했다.

도당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당 윤리규범이 규정한 품위유지(5조) 및 성희롱·성폭력 등 금지(14조)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 시의원은 과거 모 사회복지시설 근무 당시 성폭행 가해자인 원정을 감싸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

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됐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두 의원의 행위가 여성비하와 폭언, 성희롱·성폭력 금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등 윤리규범을 명백히 위반해 불가피하게 최고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비는 언제 그치나”...10분 갱신 초단기 예보 나온다

기상청, 직전 1시간~이후 5시간 정보 10분 단위 갱신

지금 내리는 비는 몇분 뒤에 그칠까?

기상청은 이같은 정보를 담은 초단기 강수에측정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일상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강수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

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정부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초단기 강수에측정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과 모바일 웹에서 시간당 강수량을 보여주는 이미지 형태로 볼 수 있다.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전까

지는 레이더 관측자료가, 이후 5시간은 수치예보모델이 생산한 강수영역영상이 10분마다 갱신돼 제공된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비가 언제, 어디에 내릴지에 대한 정보는 국민생활과 재해 예방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보다 나은 기상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대낮 여성 추행 40대 불법체류 외국인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여성의 몸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러시아인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24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시내버스정류장 주변에서 3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초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추궁한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2016년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했던 A씨는 체류 기간(두 달)이 만료된 뒤 노숙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도 동네 주민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 역주행한 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A(4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46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모 아파트 주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 역주행 뒤 신호등 지지대와 B(75·여)씨를 연이어 들이받은 혐의다.

보행자 녹색신호를 기다리던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승합차 동승자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차선에 돌아온 뒤 대각선 주행, 인도를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차는 교인들을 태우는 차량이었고, B씨는 다른 교회에 가려고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상황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가 회복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 식당서 도박판 벌인 중국인 등 7명 검거

제주 시내 한 식당에서 전자동 마작테이블을 설치해놓고 도박판을 벌인 중국인 동포 등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중국인 동포 송모(38)씨 등 총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패를 자동으로 섞어 주는 전자동 마작테이블을 이용해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마작테이블은 마작패 112개를 자동으로 섞어 패를 도박꾼에게 배분해주는 최신식 기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전자동 마작전용 테이블 2대를 설치해 놓고 지난해부터 중국인 동포 위주로 도박판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제주 시내 한 식당가에서 중국인들이 모여 마작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 가량 잠복 끝에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붙잡았다.

현장에서 경찰은 마작테이블 2대와 마작패 578개, 판돈 154만원도 압수조치했다.

## 발일 가던 승합차 전복 4명 사망·12명 중경상

22일 오전 7시33분께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편도 1차선 도로(416호 지방도)에서 15인승 그레이스 승합차가 내리막길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 전복됐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 강모(61·여)씨 등 여성 4명이 사망하고 A(70·여)·B(70·여)씨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강원소방본부는 부상자 이송 당시 5명이 심정지 상태로 파악돼 당초 사망자 수를 5명으로 밝혔지만 1명이 위독한 상태의 중상자로 확인되면서 정정했다.

9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상태가 심각한 부상자들은 강원아산병원과 삼척의료원으로 이송됐고 경상자들은 태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6만~10만 원 사이의 일당을 받고 발일을 하는 인부들로 대부분 60~70대의 여성들과 태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발에서 파종 작업을 하러 새벽길을 나섰다. 사고 당시 이들 대부분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크게 난 것으로 보인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